

여명노인복지센터 「여명」 통권 제27호

발행처 : 여명노인복지센터 ◎ 발행인 : 도성숙 ◎ 편집인 : 최 현

전 화 : (063) 224-5673 ◎ F A X : (063) 224-6896

54964 전주시 완산구 배학1길 4-3

◎ E-mail : careym@hanmail.net

◎ 카페 : <http://cafe.daum.net/careym>

◎ 인쇄·디자인 : 대흥정판사 063)254-0056

여 명



아름다운 곡선

당신이 희망을 알고 싶다면 절망을 겪어야 한다.
기쁨을 알고 싶다면 고통을 알아야 하고
웃음을 알려면 눈물을 흘려야 한다.
은혜를 알려면 배신을 당해야 하고
감사를 알려면 상실을 만나야 한다.
사랑을 알려면 사랑을 잃어야 하고
돈을 알려면 돈을 잃어야 한다.
성공을 알려면 실패를 경험해야 하고
지혜를 알려면 혼란을 겪어야 한다.
빛을 알려면 어둠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서툴고 어리석어 직선의 길을 걷지 못한다.
돌아가고, 물러서고, 주저앉고, 넘어지면서 길을 간다.
뒤뚱거리고 흔들리며 망설이고 갈등하면서 길을 간다.
그러다가 어느 날,
통합의 곡선을 만나게 되고, 그 길을 사랑하게 된다.

출처: 월간 좋은 생각 정용철



CONTENTS

02 아름다운 글이 있는 곳

03 여는 글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 윤미래 (후원자)

04 월별 지원서비스

11 2015 회계보고 / 도움의 손길

12 여명어르신일거리마련센터

**잘먹고 잘살면 된다고, 성공하라고, 출세하라고, 부자되라고 고함치는 이 시대에
바보야!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야 다짐하면서 당신들이 사는 이유를
오늘도 삶으로 증명해 내는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윤미례 (후원자)

시댁과 친정 부모님 3분 모두 돌아가시고 올해 77세 되신 친정 어머니만 살아계셔인지 저는 부모님의 소중함을 더욱 절감합니다. 그런데 모처럼 시간을 내어 찾아뵈었다가도 어머니의 괜한 말로 사람을 오해하고 판단하는 모습에 저는 이내 더 이상 얘기를 듣지 못하고 화를 내던지 그냥 입을 꼭 다문채 있다가 무거운 맘으로 돌아오기가 일쑤입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감사보다 원망과 불평만 쏟아놓는 것인지 저의 어머니가 나이가 드시면서 점점 그렇게 변해가는 모습에 울적해집니다.

그럴 때면 저는 의도적으로 여명노인복지센터를 생각합니다.

노인이라는 절망의 단어를 희망의 단어로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들!!

20년 가까운 시간을 한결같은 맘으로 아니 갈수록 더 진국이 되어 제 어머니 한 분도 감당하지 못해 힘들어하는 저를 부끄럽게 만드는 재주꾼들!!

노인분들의 몸과 마음과 형편과 사정을 살피며 필요에 따라 채워주는 맞춤형 지혜자들!!

이미 아주 많이 늘어본 경험이 있는 것처럼, 아주 심하게 아파본 경험이 있는 것처럼, 지독히도 외로워 본 경험이 있는 것처럼 어쩔 그렇게 지칠 줄 모르고 어르신들의 삶의 짐을 져주는지 그들의 사랑의 수고를 잠깐만 생각해도 제게 주어진 삶의 길을 힘차게 걸어갈 에너지를 얻습니다.

여명노인복지센터 직원 여러분!

잘먹고 잘살면 된다고, 성공하라고, 출세하라고, 부자되라고 고함치는 이 시대에

바보야!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야 다짐하면서 당신들이 사는 이유를 오늘도 삶으로 증명해 내는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2
February

설 명절 물품지원 (10일)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설 명절! 아직은 한창 남은 겨울 추위가 만만치 않은 이 겨울 홀로 지내시는 우리 어르신들께 마음을 담아 선물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참쌀과 조기, 떡국떡을 포장하여 드렸는데 어찌나 고마워 하시고 기뻐하시는지... 어르신! 마음이 조금이나마 포근해지셨나요?!!



전재협 정기총회&정책세미나 (1. 29)



한재협 정기총회 (2. 26)



전주지역회장 이취임식 (2. 27)



전재협회장 이취임식 (3. 12)



2015년 상반기 회계 전문교육 (3. 26)



직원 아우회 (3. 27)

상큼하고 향긋한 봄 내음이 코 끝을 간지럽힐 때 순천 선암사와 낙안읍성을 다녀왔습니다. 서로가 봄의 얼굴이라 봄을 내듯 벚꽃과 매화 등 다양한 꽃들이 저희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패랭이 잔디를 이식하던 낙안읍성 어머니들의 분주했던 손길이 아련합니다.



4
April

어르신들의 봄꽃 나들이 (23일)

늘 이 맘 때쯤이면 우리 어르신들이 궁금해하고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저희 센터 마당에 만개한 꽃들의 안부입니다. 올해도 잘 피어났는지? 어느 어느 꽃들이 피기 시작했는지? 얼마나 더 컸는지? 등등 마치 손주 녀석들 안부를 묻듯 합니다. 또 오랜만에 만난 어르신들끼리 그간 잘 지냈는지 서로의 안위를 챙기며 손잡고 인사하는 모습도 아름다운 또 하나의 봄풍경입니다.



결핵예방 교육 & 검사 실시 (23일)

전주시 보건소에서 어르신들에게 결핵에 대한 예방교육과 검사를 실시해 주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어르신들은 다들 건강하시답니다. 감사~~ 감사~~

5
M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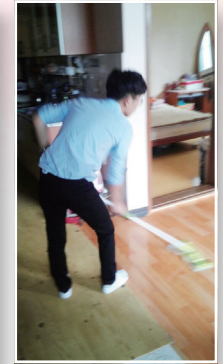
아버이 주간 돼지고기 지원



운영위원회(26일)



자원봉사
현장속으로!





추석 물품 지원 (14일)

올 추석은 조금 이르게 찾아왔네요!! 저희 센터는 매 추석 때마다 햅쌀을 드리는데 때가 이른 탓에 미리 주문 예약까지 하여 어렵게 햅쌀을 구입해 어르신들께 전달해 드렸습니다. 조기와 오징어도 함께요!! 귀한 햅쌀여서인지 받으시는 분들의 반가움도 두 배가 되고 전달 해 드리는 저희 마음도 기쁨충만!! 기름진 햅쌀 맛나게 드시고 더 윤택해지시길!!



전북재가노인초청 효도 큰잔치 (16일)

“자방사방 효도 큰잔치” 이름으로 정읍 공설운동장 국민체육센터에서 어르신들 효도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가수 박현빈씨가 초대가수로 온다는 소식에 많은 어르신들이 기대했던 잔치였는데 역시나 대단하더군요! 의자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고 춤을 추는 어르신들! 가수의 손이라도 잡아보고 싶어 하시던 소녀같은 어르신들!

그리고 금강산도 식후경이라 했던가요? 점심으로 대접해 드린 한방 한우탕은 최고였다며 우리 어르신들 모두가 엄지 척!!!



제 2회 전북재가노인복지주간 홍보캠페인 (22일)





가족공예 체험 나들이 & 공연관람 (15일)

부안 청자박물관 도자기 체험, 임실 치즈마을 체험 등 어르신들이 직접 손으로 해보는 체험을 좋아하셔서 올해는 가족공예 체험을 해보았습니다. 강사님의 친절한 안내에 따라 동전지갑을 만들었는데, 예전에 손바느질을 많이 해보셨다며 도리어 젊은 봉사자들보다 훨씬 잘 하시고 옛 생각도 난다며 어찌 재밌게 하시던지...
맛있는 한우탕으로 점심을 드시고 새만금으로 가서 “아리울 스토리”공연을 관람!!
와우!! 어떤 수식어가 필요없는 환상적인 무대였습니다. 멋진 가을 여행 잘~~ 다녀왔습니다.



11
November

전북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세미나 & 도지사상 수상 (24일~25일)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의 가족이 되어 그 분들의 아픔을 현장에서 느끼며 섬겨왔던 종사자들이 서로를 위로하고 도닥겨려주는 세미나가 부안 모항 해나루가족호텔에서 있었습니다. 각자 일하는 시설은 달라도 공통된 고민과 보람을 갖고 있기에 금새 하나가 되는 시간였습니다. 또 저희 센터 차상미간사가 전북도지사상을 수상하게 되어 더욱 특별한 날이었지요. 많이 많이 축하해요^^



12
December

성탄절지원 (24일)

기쁜 성탄! 메리 크리스마스!

따뜻한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성탄! 어르신들과 함께 나누고자 선홍빛깔의 탄탄한 육질을 뽐내는 신선한 소고기 한 근의 선물 보따리!!





따뜻한 겨울나기 “마음과 몸의 온도 UP” => 이불지원 (29일)

한국사회복지협의회 “2015 동절기 사회복지 취약계층 지원사업”으로 어르신들께 따뜻하고 포근한 겨울이불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가벼우면서도 따뜻한 겨울 이불을 보시더니 마치 신혼 이불 같이라며 좋아하십니다. 너무 너무 따뜻해서 자다보면 덤기까지 한다니... 올 겨울 확실하게 어르신들의 “마음과 몸의 온도 UP”



해님이 축제 (24일)

해마다 갖는 저희 센터 해님이 축제는 후원자, 봉사자, 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 위로하고 나누는 말 그대로 축제입니다. 감사와 섬김의 마음으로 직원들이 손수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들이 고급진 뷔페로 거듭난 순간! 마음이 만져지고 힐링이 되는 축제! 이게 바로 저희 해님이 축제랍니다!!



전주지역회 송년회 (11일)

함께 했던 2015년을 좀 더 감사하고 의미있게 마감하려 처음 송년회를 갖었습니다. 애쓴 종사자들에게 시상도 하고, 축하해 주고, 식사도 함께 했습니다. 돌아보니 매일 매일이 다사다난 했네요. 그저 감사뿐입니다!

2015 회계보고

세 입				세 출			
관	예산액	결산액	증감액	관	예산액	결산액	증감액
세입 합계	163,223,657	3,989,092	-765,435	세출합계	163,223,657	158,541,672	-
보조금수입	82,842,000	82,842,000	-	사무비	149,246,977	141,613,447	-
후원금수입	13,191,359	13,945,359	-754,000	사무비		7,633,530	-
전입금	67,180,000	67,180,000	-	재산조성비	12,000	12,000	-
잡수입	10,298	21,733	-11,435	사업비	13,964,680	8,517,260	-
이월금				이월금		765,435	-

2015 후원금 수입지출내역

구분	수입내역		사용내역		비고
	후원금의종류	금액	사용항목	금액	
총 계		13,945,359		13,945,359	
후원금	지정후원금	4,000,000	지정기탁사업	4,000,000	
	비지정후원금	9,945,359	사무비	682,499	
			사업비	8,508,860	
			이월액	754,000	

우리의 작은 사랑을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 물질후원 |

강미현 권태균 권현정 김기현 김대곤 김성희 김요셉 김윤일 김인순 김현석 김화영 노영숙 노인숙 도성숙 문세권 문규원 문다원 문도원 문채원 박래승 박완철 박은영 소점례 유덕순 유정자 윤미례 이국진 이금자 이기룡 이마트 이소영 이수영 이정후 이현미 이희준 임선아 임은희 장한나 정숙희 주미애 진성택 차상미 천홍지 최명순 최미선 최순철 최승호 최정애 최 현 황은희 제2청년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물품후원 |

전주하림, 본죽중화산동, 죽이야기효자휴먼시아점, 진보식품, 엄재혁(대주상사), 코코호도곰암점, 박명식 명식품(봉유통) 김은희(전주승헌특판), 하나로떡집, 허규모(낙원떡집), 푸드뱅크, 형제유통

| 자원봉사자 가족 |

권태균 김기현 김화영 김요셉 노영숙 도성숙 박래승 박지숙 윤미례 이수영 임은희 장한나 정숙희 조계석 주미애 최명순 이정후 문채원 문다원 문규원 노정숙 박은영 이소영 김윤일 김채연 김준언 라유진 라유림 이미경 진성택 최영순 김종문 윤광선 이정철 노항래 문세권 윤성찬 안 준 최승우 홍지혁 정현상 조아영 전민경 이정원 김란경 조하영 최다솜 한가를 최명주

※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혹 기록상 착오로 누락된 분이 있으시면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명어르신일거리마련센터는



어르신들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거리를 마련하여
경제생활과 사회참여를 통해 활기차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준비하고
여가 선용 및 소득 창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주시에서 위탁받아 2003년 7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많은 어르신들이 센터를 통하여 삶의 기쁨과 활력을 얻고 계십니다.

◎ 어떤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까?

전주시에 거주하시는 55세이상 노인으로 저소득 생활자를 우선으로 합니다.

사업 주요내용 : 내의, 유아복포장, 상자접기, 실밥정리 등
근무기준 : 주 5일 오전 9시~오후 5시(신축적운영)

여명어르신일거리마련센터는 외로운 어르신들에게 친구가 되어 드립니다
여명어르신일거리마련센터는 잃어버린 기쁨과 건강을 찾아 드립니다.
여명어르신일거리마련센터는 어르신을 사랑합니다♥

예금주 : 여명노인복지센터

전북은행 510-13-0310192

국민은행 501-01-0601-523

우체국 400010-01-011708

농협 658-01-002798

